

K-뷰티론 자금 2배 '깡충'... 한류 열풍 지킨다

중진공, 내일부터 신청 올해 예산 400억원 편성 지난해 광주·전남서 9개 기업 6억5000만원 수출 생산비 부담 해소 지역 중기 세계 시장 공략 탄력

세계 시장에서 K-뷰티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정책자금 4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됐다.

수출 호조세를 타고 있는 국내 화장품 산업에 정부가 자금지원 실탄을 두 배로 늘려 투입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6년 중소기업 K-뷰티론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6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6년 중소기업 K-뷰티론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6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예산은 전년 200억원에서 두 배 늘어난 400억원으로 편성됐다. 'K-뷰티론'은 확정된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선생산, 후대금 회수 구조가 일반적인 화장품 산업 특성을 반영해 도입됐다. 주문을 확보하고도 초기 생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신설된 K-뷰티론은 시행 6개월 만에 183개사에 200억원이 전액 집행됐다. 지원기업의 수출액은 이전보다 18.8% 증가했고, 수출기업 수도 24.8% 늘어 정책금융이 실제 수출 확대 효과로 이어졌다

평가를 받았다. 지역에서는 총 9개 기업이 6억5000만원을 수출 받았다. 세부적으로 광주지역에서는 6개 기업이 총 4억5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전남에서는 3개 기업이 2억원이 지원됐다. 규모는 아직 수도권에 비해 크지 않지만, 지역 중소 브랜드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광주·전남 화장품 기업들은 OEM·ODM 생산 기반과 천연 원료 강점을 앞세워 동남아·중화권 등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다만 발주 물량이 늘어날 경우 초기 자

금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만큼, 이번 예산 확대가 생산 대응력과 납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는 1회당 지원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화장품 생산비뿐 아니라 용기·패키지 등 필수 부자재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대출금 의무 사용기간은 12개월로 연장됐으며 마케팅·물류 등 생산 외 용도로 활용 가능한 비율도 30%로 상향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출시 속도와 물량 대응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생산·부자재·물류를 아우르는 자

금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난 만큼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함께 집행의 효율성 확보도 과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국내 화장품 산업은 K-컬처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넓혀가고 있다"며 "K-뷰티론을 통해 국내 우수 화장품 브랜드사의 창의적인 제품과 혁신적인 기술력이 세계 소비자와 만나는 연결고리가 되도록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티웨이, 우리동네 특가 이벤트 32개 노선 최대 13% 할인 행사

티웨이항공이 광주를 비롯해 부산·대구·청주·제주 출발 노선을 대상으로 한 '우리 동네 특가' 프로모션을 다음달 2일까지 진행한다.

지역 공항 이용 수요를 겨냥한 맞춤형 할인 행사로 국내선과 국제선 등 총 32개 노선이 대상이다.

이번 프로모션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탑승 기간은 10월 24일까지다. 다만 세부 적용 기간은 노선별로 다르다.

지역 출발 항공권 예매 시 할인 코드 'FEB26'을 입력하면 출발지에 따라 최대 13%(부산 최대 10%, 대구 최대 10%, 청주 최대 13%, 제주 최대 7%, 광주 최대 5%)까지 운임 할인이 적용된다.

추가 혜택도 있다. 국내선 15만원 이상, 국제선 25만원 이상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만원 상당의 추가 할인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세부 노선과 할인 적용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항공권을 예약하는 고객에게는 소노호텔앤리조트 국내 사업장 객실 20%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항공과 숙박을 연계해 여행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티웨이항공은 현재 부산·대구·청주·제주·광주를 기점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지역 공항 중심의 네트워크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신세계, 따뜻한 이웃 사랑 나눔 실천 (광주신세계가 24일 광주 북구 대한적십자사 광주봉사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배식 봉사를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전남정보문화진흥원, 특화산업에 첨단 기술 입힌다

전남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운영사업 공모 최종 선정

(제) 전남정보문화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지역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전남도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전남은 나주시에 가상융합산업을 이끄는 핵심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시행된 '가상융합 산업 진흥법'에 발맞춰 기존의 메타버스

지원센터를 AI와 가상융합기술이 집약된 혁신 거점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진흥원은 지역 특화 산업에 첨단 기술을 입히는 '지역 가상융합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문을 열 '전남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나주시에 구축된 5G MEC 실증 테스트베드 등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기술적

시너지를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센터는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며, 연간 약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상융합 인프라 운영, 서비스 제작 및 실증, 전문 인력 양성, 국내외 마케팅 강화 등 전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닦아나간다.

이인용 전남정보문화진흥원장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AI 기반의 가상융합 기술이 전남의 모든 산업에 스며드는 디지털 전환의 성공 모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용성 기자 yj1404@gwangnam.co.kr

중기부, 비대면진료 규제 개선 본격화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비대면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 두 가지 주제를 병행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첫 번째 주제인 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과 관련

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기준과 요건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중기부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후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오는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재정의 인정범위, 비대면 진료 시 동일지역의 범위, 의약품 처방의 범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통계 분기 보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요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정부,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초저리 자금 지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에 초저리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원까지 연 1.3%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자금은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2%p, 대기업은 1.5%p

를 차감할 수 있으며,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최저 금리다.

저탄소 공정 전환이나 탄소감축 투자를 계획 중인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산업(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에 속하는 기업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선정 기업에는 선정·평가 시 가점(2점)이 부여된다.

연합뉴스

제22회 영산강사랑사·도민

*** 제10회 나주사랑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

한마음 걸기대회

2026. 3. 28. (토) 09:00~13:00

'영산강 환경정화 캠페인' 참가학생에게
→ 자원봉사(1365) 2시간 인정

접수방법 광남일보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www.gwangnam.co.kr)

행사장소 빛가람 호수공원
(전남 나주시 호수로 77)

문의 광남일보 사연부 T. 062)370-7090

참가대상 남녀노소 누구나(절차비 없음)

접수기간 2026년 2월 20일(금) ~ 3월 25일(수) 까지

※ 우선 시연로 진출합니다.
※ 위 일정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광남일보** | **도민투데이** | (사)광남문화재단 | **전라남도**

후원(예정): **나주시** | **나주시 임업유계자협의회**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 **광주광역시체육회** | **전라남도체육회** | **대한적십자사 광주광역시지부** |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